

길

잃어 버렸습니다。

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

두손이 주머니를 더듬어

길에 나아갑니다。

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

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。

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

길우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

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

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。

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

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프릅니다。

풀 한포기 없는 이길을 걷는것은

담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、

내가 사는것은、다만、

잃은것을 찾는 까닭입니다。

一九四一、九、三一、

길

잃어 버렸습니다。

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

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

길에 나아갑니다。

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

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。

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

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

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

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。

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

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。

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

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

내가 사는 것은, 다만

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。

1941.9.31.